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소설

몽중인-향단이라 이름 지어주고

이연주

*향단은 옥중에 있는 춘향과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다 잠이 든다. 향단의 꿈이 시작된다.*

1.

그 때여 월매는 동네에 천상 고아 아이 하나 데려다가 향단이라 이름 지어주고,  
“춘향 아씨라 부르 거라.”

향단은 월매가 쥐어 준 끈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보드라운 비단 끈은 향단이 처음으로 만져 보는 것이었다. 뭐가 이렇게 부들부들할까. 이렇게 부드러운 비단으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자면 얼마나 잠이 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향단은 웃음이 났다. 향단은 늘 잠이 달았다. 아침에 일어나 춘향이 씻을 물을 준비하고, 춘향을 깨운다. 춘향이 얼굴을 씻는 동안 춘향의 옷을 곱게 개어 놓는다. 춘향이 옷 입는 것을 도운 후에 춘향의 방으로 아침상을 들여놓는다. 아니다. 춘향이 일어나기 전부터 향단의 아침은 시작된다. 춘향의 아침상을 들여놓기 전에, 춘향의 옷 입는 모양을 돕기 전에, 춘향의 옷을 개어놓기 전에, 춘향을 깨우기 전에, 춘향이 씻을 물을 준비하기 전에 향단이 대충 아침 챙겨먹기 전에, 쌀 한 바가지 씻어 불에 올리기 전에, 대충 얼굴 씻어 잠 깨기 전에, 월매와 춘향이 새벽 찬 기운에 깨지 않도록 방에 불을 때워 넣는다. 춘향이 월매와 따뜻한 방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 향단은 그제서야 방문 앞에 앉았다.

“너 이거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월매가 향단과 춘향이 처음 밖에 나가던 날, 향단은 이제야 꼭 붙들고 갈 줄이 생겨서 마음이 놓였다. 그동안 어디 하나 걸쳐진 연줄이 없어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던 향단은 꼭 쥐고 놓치면 안 될 줄이 손에 쥐어졌을 때 그 끈을 자신의 운명처럼 여겼다. 춘향의 끄트머리를 졸졸 따라다니며 어떤 놈들이 함부로 춘향에게 ‘반만 양반’이란 소리 못하게. 춘향 아씨 뒤에 나, 춘향의 끝, 향단이가 있다. 향단은 그렇게 춘향이 손에 쥔 비단 끈을 꼭 붙잡고, 춘향의 뒤에 있었다. 춘향이 가는 곳엔 늘 향단이 있었다. 향단은 길게 늘어진 비단 끈이 이어진 곳으로 걸어간다. 그곳에 그네가 있다. 춘향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눈치 없이, 뒤에 따라다니는 험담 없이, 남원 땅을 누비던 그네. 춘향이 그네 위에 올라갈 때면 향단은 끈을 길게 늘여 놓고 춘향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 번 굴러 앞이 솟아나고, 두 번 굴러 뒤가 멀어진다. 앞이 솟아나면 훨훨 날아가라고 끈을 풀어주고, 뒤가 멀어지면 땅에

떨어지지 말라고 끈을 잡아준다. 앞이 솟아나면 풀어주고, 뒤가 멀어지면 잡아주고, 풀어주고, 잡아주고. 향단은 춘향이 그네 타는 모양에 따라 자신도 그네 타는 양, 끈을 꼭 잡고 몸을 움직여본다. 솔솔 부는 바람에 땅에서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데, 춘향과 연결된 끈이 툭 하고 땅에 떨어진다. 향단은 깜짝 놀라 비단 끈의 끝을 본다. 꿈이다.

“얼마나 잠이 많으면 아침부터 졸고 앉았나?”

방문이 열리고, 월매의 호통에 방문 앞에 앉아서 졸던 향단은 벌떡 일어나곤 했다. “저거, 잘못 데려온 거 아닌가 몰려. 잠이 많을 때라고 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 자꾸 그러면 너, 다른 집에 보내 버린다.” 향단은 차라리 월매의 호통이 그리웠다. 춘향이 옥에 갇힌 후로는 월매의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소리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 다시 끈 떨어진 신세구나.

향단은 맥이 풀렸다. 더 이상 붙잡을 끈이 없었다. 아니, 끈을 잡아줄 손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 집을 나가자니 월매가 밥도 못 먹을까 걱정됐다. 사실 나간다고 해도 어디로 갈 곳이 없었다. 이름도 없이 떠돌던 시간을 되풀이하기에는 세상은 험했다. 어찌됐든 양반의 피를 물려받은 춘향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며,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춘향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쿵 저러쿵하는 말은 날로 심해지지 않는가. 춘향이 칼을 차고 앉아 기개 넘치는 소리로 “수절이오.” 외치면 돌아오는 것은 곤장이었다. 사람들은 하루는 열녀라 칭송하고, 하루는 양반도 아닌 것이 절개를 지킨다고 비웃었다.

사람 죽고 나서 열녀비가 무슨 소용일까. 언제까지 이 집에 있다가는 굶어 죽는 것 아닐까. 내가 여기 있다고 바뀌는 게 있을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내가 아닐까. 이리다 다른 집으로 팔려가겠지. 그리고 또 그 집에서 밥을 하고, 불을 떼고, 빨래를 하겠지. 춘향은 아무 것도 먹지 못하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앞날 걱정하는 건 아닌가. 춘향아씨는 괜 찮을까. 혼자서 얼마나 무서울까. 나는 또 얼마나 무서운가. 어지러웠다.

어지럽다.

그네에 오르니 갑자기 높아진 자리에 몸이 휘청거리며 어지럽다. 눈을 꼭 감는다. 숨을 고른다. 한 발 구르면 앞이 솟아나고, 두 발 구르면 뒤가 멀어지고. 춘향의 뒷모습을 보며 땅에서 움직인 것처럼 앞뒤로 발을 굴러본다. 지 맘대로 휘청거리던 그네는 점점 향단의 몸에 익숙해진다. 향단은 눈을 뜬다.

아.

향단의 숨이 터져 나온다. 뭐가 이리도 넓은 말이나. 남원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 없이 넓고 탁 트였다. 그네 위에서 발을 구르고, 무릎을 굽혀 몸을 더욱 크게 움직여본다. 남원 너머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 몇 날 몇 밤이 걸려서야 겨우 갈 수 있던 저, 저, 저 먼 곳으로.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어떤 세상이 있을까. 향단은 몸을 던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진다. 저기로 들어가자. 향단은 몸을 날린다. 힘껏.

그 때 누군가 향단의 손을 잡는다.  
위험해!

왜 자꾸 이런 꿈을 꾸지?

이몽룡의 집을 찾아가 한 마디 하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가 된 것일까. 그래봤자 두드러 맞고 쫓겨났겠지. 향단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디부터 잘못이었는지를 생각해본다.  
괘씸한 방자놈. 그네를 집 후원에 매달지 않고 광한루에서 뛰어논다고 춘향의 행실이 그르다질 않나. 이몽룡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어미인 월매를 잡아다가 몽둥이로 정강이를 때리고 다리를 비틀어 뼈를 으스러뜨린다 춘향을 협박하니, 세상 미친 놈 아닌가. 이몽룡은 태어난 것이 권력이라, 춘향을 불러오라 명령을 하고, 방자놈은 이몽룡의 권력이 지 것인 것 마냥 여자를 희롱하고 겁박하는데, 그 이야기의 결말이 사랑일 줄은 참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상에, 사건의 시작에 있던 이 놈들은 지금 정작 어디에 있단 말인가.

위험해!

누구셔요?

위험하다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인가. 그리고 보니 이몽룡이 하는 말투와 비슷도 하다. 그런데 꽤 다르다.

또 꿈이구나.

여기가 어디지? 땅인데 저 밑에 또 땅이 있다. 땅 위에 땅이 있다. 땅 아래 땅이 있다.

여기가 아닌, 저 먼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이 곳은 달라도 또 너무 다르다.

미쳤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 향단은 주변을 어지러운 눈으로 돌아보다가 웃음이 난다. 꿈인데 여기가 어디고, 언제인지 뭐가 중요한가 말이다.

아이고. 참 힘들었다. 이승이 저승 같은데 어디로 가면 뭘 하며, 살아있으면 또 어떻게 산단 말인가. 죽으면 죽은 거고, 꿈이라면 꿈이나 신나게 한 번 실컷 껴보자!

향단이 신나게 웃는데, 향단을 도와준 여자가 향단의 등을 때린다.

지금 웃음이 나와? 살아있다고 웃냐?

자기 또래의 여자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향단을 쳐다보다가 향단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같이 웃는다.

여자는 향단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보니 누구 손을 제대로 잡아 본 적이 없구나. 비단 끈보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향단은 잠이 든다.

옥 안에 갇혀 칼을 차고 있는 춘향의 모습을 보니 향단은 기가 막혔다.

아이고, 아가씨! 무슨 죄가 지중허여, 이 지경이 웬일이오? 서방님 정대하신 처분, 아가씨 착헌 마음, 어찌 복을 못 받는고? 하느님도 망령허사 살퍼주실 줄을 모르시네. 아이고, 아가씨! 의지혈 곳 바이없는 노래허신 마나님과, 혈혈단신 소녀 몸은 뉘기를 믿고 사오리까? 춘향이 광한루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네에 올라타서 이목을 끌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이몽룡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방자 놈이 춘향에게 협박하여 이몽룡 만나게 했을 때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욱을 해줬더라면, 이몽룡이 집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면, 변태 같은 변사또가 마을에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차라리 떠나려는 이몽룡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면. 상상할수록 향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춘향을 향해 서럽게 우는 일밖에 없었고,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춘향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요, 여자로 태어난 게 죄였다.

그럼 난 무슨 죄를 지었나.

괜찮아?

향단이 눈을 떠 보니 자신을 구해준 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자면서도 그렇게 서럽게 우니? 정신이 좀 들어?

향단이 주변을 둘러본다. 작은 방. 좁은 가운데 복잡한 살림살이가 높이 쌓여 있었다.

내가 사는 집이야. 괜찮아질 때까지 여기에 있어도 돼.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아무 것도 안 해도 돼.

향단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왜 나를 집에 들인다는 거지?

그런데 왜 죽으려고 했어?

내가요?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잖아. 내가 그 때 옥상에 안 올라갔으면 진짜 큰일이었어. 회사 건물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옥상? 회사? 그게 다 무슨 소리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나 보구나. 그래도 살아. 살아야 아까처럼 웃기도 하지.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날도 오겠지. 그러니까 살아. 같이 살아보자.

정말 여기에서 살아도 돼요? 뭐라고 부를까요?

언니?

김가, 이가, 박가, 하는 거 없이 그냥 언니요?

언니는 끄덕인다.

언니도 성이 없네요. 언니. 좋소. 언니.

어차피 돌아가 봐야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현실로 돌아가서 서서히 죽어가는 삶을 선택하고 싶진 않았다. 향단은 꿈을 살기로 선택한다.

2.

현실의 삶과 꿈에서의 삶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아무런 신원도 확인되지 않는 향단에게 언니는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는 묻지 않았다. 향단도 어디를 가든 어떤 곳인지, 자신이 누구와 살아야 하는 지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누가 어디로 데리고 가면 그 곳에서 먹고, 자고, 일을 했다. 현실에서의 뛰어난 적응력은 꿈에서도 그 힘을 발휘했다.

이름이 뭐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을 물어봤다. 언니도 향단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말이었다.

이름이 뭐야?

향단이요.

무슨 뜻이야?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라 하고, 이름에 운명을 지어주는 거지. 물론 그대로 살진 않지만.

양반네들이야 태몽에서 운명을 찾아 이름을 짓는 거라. 우리 아씨 태몽은 복숭아꽃에 오얏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즐겁다 하여 봄 향기, 춘향이라. 오얏나무 이씨 가문에 몽룡 도련님은 용꿈을 꾸었다 하여 말 그대로 몽룡이 되었다 하지요. 난 그냥 춘향 아씨 끝에 졸졸 따라다니는 몸종이요.

춘향 아씨의 끝에 매달려 다닌다고 향단이라. 넌 널 향단으로 정체화 했구나. 그래. 모두가 춘향으로 살 필요는 없겠지.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을 거고.

정체요? 내 정체는 따로 없어요.

그럼 난 단이라고 부를게. 여기에 춘향이는 없잖아.

현실에서는 향단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향단은 처음으로 궁금해졌다. 나는 왜 향단이 일까.

현실과 꿈이 아주 다른 점은 돈을 받는 것이었다. 일을 하고 돈을 받다니.

언니는 소개한 자리의 급여가 최저시급 정도라며 미안해했다. 향단은 무엇이 적고, 많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저 돈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신분이 조금은 올라간다는 것에 만족했다. 이제 자신도 열심히 재산을 모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도 신분이 바뀔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고했다는 말도 들어봤다. 향단은 언니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졸랐다. 시작은 언니의 사무실 청소였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 바닥을 쓸고 닦는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줄 지어 놓여있는 책상과 의자를 닦고, 탕비실에 어지러이 놓인 컵을 닦아 제자리에 놓는다. 출근한 사람들이 모닝커피를 마시는 동안 향단은 화장실 바닥을 닦고, 변기와 세면대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아낸다.

화장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향단을 불편해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향단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았다. 향단은 서둘러 청소복을 갈아입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다른 건물로 들어가서 서둘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음료 주문을 받는다.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아이스 카페 모카, 카라멜 마키아또를 지나 바닐라 더블 샷, 에스프레소 마키아또, 바닐라 크림 콜드 브루, 아, 디카페인, 디카페인, 1/2 디카페인, 초콜릿 크림 칩 프라푸치노, 제주 유기농 말차로 만든 크림 프라푸치노, 카라멜프라푸치노에 헤이즐넛시럽 두 펄프에 자바칩 다 넣어서 같이 갈아주시고, 초코드리즐은 컵 벽에 먼저 뿌려주시고, 부은 다음에 헝 올려주시고 통자바 따로 더 올려주시고, 그 위에 카라멜드리즐 많이 뿌려주시고, 망고 바나나 블렌디드, 자몽 허니 블랙티, 패션 탱고 티 레모네이드 피지오, 아이스 캐모마일 블렌드 티, 프리퀀시 미션 음료 17잔을 한 번에 주문 받고 나면 정신이 쏙 빠졌다. 그러나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주문을 그대로 다시 한 번 입으로 읊으며, 향단의 손은 기계를 열심히 오간다. 오후 시간대의 패스트푸드 점은 좀 더 수월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이 들어온 햄버거 빵에 순쇠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올려서 빠르게 종이로 싸는 일을 향단은 노래 부르듯이 몸에 익혔다.

향단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언니는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향단만은 아니었다. 향단은 새벽 버스에 오르는 매일의 똑같은 얼굴을 기억했다. 들어가는 건물마다 인사하는 경비원과 이른 아침 사무실에 녹즙과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여성의 얼굴을. 매일 오전 10시에 음료 10잔을 양 손 가득 들고 가는 젊은 여직원과 비오는 날이면 더 급하게 햄버거 여러 봉지를 오토바이에 싣는 배달원의 얼굴을 향단은 기억하고 있었다.

어디서 여자 우는 소리 안 들려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으면 울음소리가 들렸다. 장소를 바꿔가며 다양한 일을 하는 향단에게 바뀌지 않는 업무가 있다면 화장실 청소였다. 누군가 서러운 울음을 누구도 알지 못하게 감추면서도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었다. 향단은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괜찮은 지 묻고 싶었다. 여러 개의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향단이 앉아 있는 창고 문이 열렸다. 또 꿈이다.

여기 있었네. 향단이.

향단은 일하는 곳마다 저마다의 이름으로 불렸다. 이른 아침 사무실에서는 만나는 사람이 없었다. 화장실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향단에게 말 걸 일이 없었다. 커피 전문점에서 향단은 제니퍼였다. 그러나 '저기요'로 더 많이 불렸다. 제니퍼는 향단에게는 너무나 어색한 이름이었기에 차라리 '저기요'가 낫다고 생각했다. 향단님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야!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 와중에 변 매니저는 향단을 꼭 향단으로 불렀다. 춘향은 어디에

두고 왔냐며 방자랑은 잘 만나고 있냐는 등 이상한 말을 하고는 혼자 킁킁거리곤 했다. 용역회사의 이 팀장은 지나갈 때마다 춘향이 좀 소개시켜달라며 향단과의 술자리를 요구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으며 지나갔다. 잡놈들. 그런 사람들을 지나칠 때마다 향단은 속으로 증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향단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

단아!

집 앞까지 언니를 따라온 남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고마워.

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정말 안전한 곳은 집뿐이네.

집으로 들어온 언니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야. 집을 나오기 전에는 집도 안전하지 않았거든.

그럼 도대체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집도, 집 앞도, 일하는 곳도 안전하지 않으면 차라리 감옥은 안전해요? 갇혀 있는 게 차라리 안전한 거예요?

언니의 얼굴이 춘향이다. 향단은 깜짝 놀라 눈을 비빈다. 사람들이 춘향을 ‘반만 양반’이라며, 절름발이 양반이라 부를 땐 두 다리 길이가 다른 친구, 옥분이가 생각났다. 새벽부터 일어나 남들보다 더 멀리 더 잦 걸음으로 걸어가던 옥분이에게 미안해서 소리를 냈다 질렀다. 춘향은 그런 향단이가 고마워서 그런 날은 비단 끈으로 장난을 걸었다. 옥분이가 절름발이라고 놀림 받을 때는 정작 소리 지르지 못한 자신이 미워져서 춘향의 장난은 모른 척했다. 막상 옥중에 혼자 앉아 있을 춘향을 생각하니 춘향의 장난 한 번, 비단 끈 하나 잡아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내 이름이 춘향 아씨의 옷소매에 이어진 비단자락을 잡아주라고 향단인가. 향단은 다시금 자신의 이름을 곱씹어본다.

향단은 늘 잠이 부족했다.

꿈에서 잠이 부족하다니 세상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향단은 점점 수면과 가수면의 경계가 벌어지는 것 같았다. 무엇이 꿈이었고,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꿈의 현실은 더욱 현실처럼 가까웠다. 꿈의 현실이 너무나 바빠진 나머지 현실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떤 소리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도대체 이 소리는 또 누구요?

조그마한 조각배에 몸을 싣고 춘향이 한 줄기 강을 사이에 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강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다. 한 편에는 춘향 아버지인 성 참판이 “애야 아가 애야 아가, 니

가 나를 모르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로다. 내 살아생전 너를 거둬 키웠으면 이런 고생 없으련만 이것이 모두 내 탓이로구나. 이승의 못다한 아버의 도리 예서라도 헐 것이니, 부디 이곳으로 건너 와 날과 함께 허자구나.” 다른 한 편에는 춘향 어미인 월매가 “아가 춘향아. 이년아 정신 차려라. 니가 이것이 웬일이냐! 늙은 어미는 어찌라고, 니가 이지경이 웬일이냐” 두 사람이 춘향에게 손을 흔드니 춘향이 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허허 이것이 웬일이냐. 여기가 정녕 생과 사의 경계일런가. 이곳에 와서 보니 내 마음 더더욱 분명해지는구나. 죽는데도 나로 살고, 산데도 나로 살리라. 내 뜻대로 살리라.”

적막한 남원 옥중에서 꿈을 꾸는 춘향이다. 향단은 자신의 꿈에서 또 다른 꿈을 꾸는 춘향을 만난다. 꿈 속의 향단은 춘향이 보고 있는 향단이다. 아이고, 아가씨. 의지할 곳 바인 없는 노래하신 마나님과 혈혈단신 이 내 몸은 누구를 믿고 사오리까? 아가씨. 향단이 울고 있는 자신을 본다. 꿈에서 깨어난다.

단아. 괜찮아? 왜 또 울고 있어?

난 누구예요?

넌 너지. 누구겠어.

난 왜 향단이에요? 왜 하고 많은 이름 중 향단이가 돼서 이 꿈에서 벗어날 수가 없냐 말이에요?

향단이가 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다 되면 되겠지.

다요?

넌 향단이기도 될 수 있고, 춘향이기도 될 수 있고, 몽룡이기도 될 수 있고, 그 누구도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 이름을 다시 지어주면 돼. 그리고 네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향단은 소리 내어 운다.

왜 그렇게 울어? 무슨 꿈을 꿨길래?

너무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이가 죽어 가는데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향단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다. 내가 이런다고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가. 이몽룡이 온다 한들 춘향의 운명은 정말로 달라지는가? 나는 내 운명도 어찌하지 못하면서 왜 자꾸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나. 어차피 돌아가면 난 다시 매인 몸인데. 그렇다고 여기서는 자유로운가? 붙잡아야 하는 끈만 없을 뿐이지, 여기서는 더욱 숨 쉴 틈 없이 모든 일이 향단을 옥죄고 있었다.

이게 내 운명인가. 향단은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난다. 아주 길게 향단은 소리 내어 웃



으며 운다. 울며 웃는다.

가야겠다. 일단 돌아가서 그 사람 사는 모습이라도 지켜봐야겠다. 밥을 먹는지, 굶고 있으면 죽이라도 한 술 뜨게 해야겠다. 남들이 욕하면 그 앞에서 소리라도 질러줘야겠다. 열녀 비 세운단 사람 있으면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돌을 깨버려야겠다. 죽지 말라고 손이라도 잡아줘야겠다. 괜찮냐고 한 번 물어라도 봐야겠다. 향단은 다시 생각한다. 내 이름이 춘향 아씨의 인생을 비단길로 만들어주라고 향단일까 보오.

가야한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언니, 나 갈래요.

그래? 그래. 이제는 살고 싶어졌어?

이제는 누가 부르는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이름을 다시 만들며 살려고요. 언니는요? 나 없어도 괜찮겠어요? 혼자서 괜찮아요? 언니는 뭐가 되고 싶어요?

난 무엇도 되고 싶지 않아. 그냥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을래.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을 남기고 죽는다고 하더만, 언니는 이 세상에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단 말이오?

그럼 더 좋다.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 수 있어서.

언니는 참 재밌소.

너도 참 재밌어.

향단은 웃다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언니의 얼굴이 향단, 자신의 얼굴이다.

이제 가야 되나 보오. 이게 꿈의 끝인가 보오. 아씨가 날 부르고 또 부르네. 이제 꿈에서 깨어나 나도 살고, 그 이도 살아야 않겠소.

참으로 해괴한 꿈이었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쓰린.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한 번만 다시 꾸고 싶은. 참으로 해괴한 꿈이오.

3. 향단은 광한루에 나간다. 그네를 탄다.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건방지다고 욕을 한다. 향단은 앞으로, 뒤로 열심히 발을 구르며 더 높이, 더 멀리 그네를 탄다.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프로그램북 및 판소리 소설 『몽중인-향단이라 이름 지어주고』는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창작물의 무단 도용 및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